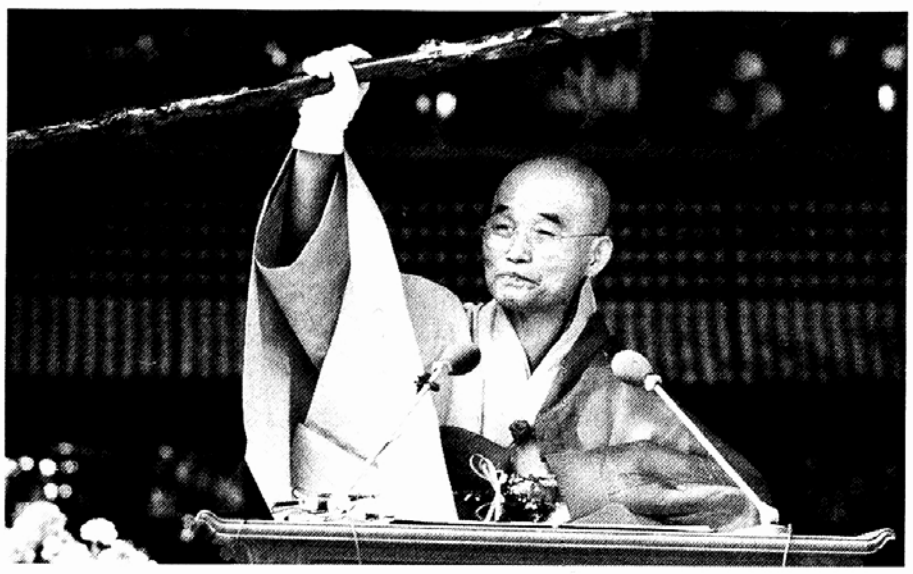
다시듣는 혜암 큰스님 법어

"허망한 나 버리고 참 나 깨닫자"

노고추(老古錐). 실컷 써서 잘 닳아 예리한 송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승려시인 정휴(正休) 스님은 종정법어집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에서 혜암(慧菴) 스님을 노고추에 비유했다. "내심자증(內心自證)을 통해 실상이 아닌 것은 버리고 자성(自性)의 뼈대로 존재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깨침의 풍선을 룩룩 찔러대는 송곳이야말로 혜암 스님의 이미지 그 자체다.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드러내 보였던 혜암 스님의 법어를 간추려 다시 듣는다. (편집자)



◇1999년 5월 11일 조계사에서 열린 종정 추대식에서 법어를 내리시는 혜암 스님.

"번뇌망상 없는 청정한 물건이 본래 나"
"성인은 부처님 하인노릇 하려고 온 것"
"부처님 시키는대로만 하면 극락인데…"

◑우리 몸뚱이가 하늘이고 땅입니다. 단결 화합하고 어디가든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다른 사람 애먹이지 말고. 나도 해롭고 남도 해로운 짓을 뭐하려고 합니까. 짧은 시간에 남도 도우면서 멋있게 살지, 우리가 얼마 산다고 남을 해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단결, 화합하고 즐겁게 삽시다. 남 즐겁게 해서 내가 손해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가는데 마다 그런 생각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도록 그 법을 어기지 말고 합리적으로 삽시다.

◑어떤 것이 참 나인가, 내가 누구냐? 이것은 내가 아니요, 이 세상 돌아온 세상 어떤 것이 나인가 말이요. 번뇌망상이 없는 청정한 물건이 본래 나일세. 작은 생각, 옳은 생각, 그른 생각 이런 생각은 내가 아니요, 참으로 나라는 것은 한 생각, 아무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눈깜짝 할 사이라도 나를 찾다 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보람 있는 삶인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꽃피고 잎 지나 그 뿌리는 하나요, 진리도 하나입니다. 사람만 이렇게 많지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콧구멍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 있고, 귓구멍 속에 한량없는 부처님 나라가 다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깨치고 보면 시방세계가 모두 나로부터 나오고, 하늘 과 땅, 해와 달 역시 내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내 마음 자리에서 보면 수없이 스러졌다 일어서는 바다의 파도만도 못한 것입니다.

◑사는 것만이 고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나고 죽으러 다니는 고생은 이루 다말로 할 수 없습니다. 뼈마디가 다 녹아들도록 괴롭기 짝 이 없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나고 죽을 때의 괴로움이 모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고 죽은 일이 없는 극락세계가 있는데 왜 사서 그런 고생길을 만듭니까? 중생이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고 길잡이 하러 나온 이가 바로 성인입니다. 성인은 부처님의 하인노릇을 하려고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를 본받아 부처님의 하인노릇을 하려는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대로가 극락이니까요.

◑우리 자신은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본래 모습은 먼지에 덮인 구슬과 같습니다. 먼지가 아무리 쌓여도 구슬의 본 성질은 변함없지 않습니까.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구슬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닦아낸 구슬은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본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설사 허공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져도 자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가 자기이기에 미물, 곤충, 유·무정물 할 것 없이 모두 자기인 것입니다.

◑깨달음을 증득한 수행자라면 반드시 스승의 한 마디에 대해 분명히 두 마디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한 길이며 한번의 견성은 모든 것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돈오돈수니 점수니 하는 논쟁이 필요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님들이 속세를 등지고 출가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견성성불을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닙니까. 견성에 이르는 길 중에서 가장 좋은 방편이 바로 화두 참구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일반적인 알음알이를 투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활구참선을 정진하고 있다는 대전제를 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태도는 우리가 일하고 장사하는 동안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첫째 소식(小食)해야 합니다. 둘째는 용맹정진을 주문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수지맞는 일중의 하나가 공부하다 죽는 일인데 목숨 내놓고 정진하다 보면 견성이 가까워오고 죽음은 멀어집니다. 셋째는, 안으로는 본심을 깨닫고 밖으로는 남을 도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참선 공부하는 것과 남을 돕는 일뿐입니다. 넷째, 주지 등의 소임을 가급적 맡지 말라고 합니다. 차별적으로 보면 각자의 소임이 다 있어야 하지만 소임을 맡다보면 공부는 온데간데 없고 집착하게 되니 멀리 하라는 겁니다. 천하총림이 다 망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말고 내 공부만 할 것을 당부합니다. 소임을 살더라도 공행(空行)을 닦아야 합니다. 끝으로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청빈하게 살 것을 당부합니다. 출가수행자들은 원래 탁발하면서 공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을 떠나지 않으시고 왕궁에 내려 오셨으며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이미 중생제도 마치셨도다. 부처님의 동체대비는 무량무애(無量無碍)하여 항하사수의 중생들이 억만겁을 찬탄한다 하여도 다 설할 수가 없다모든 인류는 절대평등한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자각하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 일체법(一切法)이 청정하여 청정이라는 이름조차 찾아 볼 수 없으니 광대무변한 우주법계의 한량없는 유정 무정(有情 無情) 부처님께 이(理)와 사(事)로 불공하라.

본래마음(本心)의 밝은 달(明月)이 일체(一切)를 밝게 비추니
이 사바세계가 곧 정토(淨土)요, 마군(魔群)과 제불(諸佛)이 본래 한 몸이로다
선악시비와 이해득실은 거품위에 거품이요, 생사열반과 지옥천당은 꿈속의 꿈이로다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무리들이여!
허망한 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달아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이 장엄한 세계를 바로 볼지어다꾀꼬리 시냇물 태평을 노래하니
푸른 솔 흰 바위 덩실덩실 춤을 추네
아—악!
〈2000년 봉축법어〉

법어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환성선사 '鶴羽心'

선사의 법명은 지안(志安), 법자는 삼낙(三諾), 법호는 환성(喚惺)이며, 속성은 정씨(鄭氏)이다.

강원도 춘천에서 현종 5년(1644)에 출생하였다. 15세에 미지산 용문사에 주석하고 계신 상봉 정원 선사를 찾아가 축발하였다.

17세에 월담 선사에게 건당하여 참행하였다. 이후 청평사(淸平寺) 백암선원(白岩禪院)에서 두타행 9년째 되던 해 여름 불볕더위에 가부좌하고 수행 중 정오(正午)에 학(鶴)이 날아갈 때 깃털이 하나 빠져 공중에 나부끼는 모습을 보고 확연대오(廓然大悟)하였다.

학우심(鶴羽心 : 학의 깃털에서 깨달은 마음)

심선각(深禪覺 : 깊고도 깊어 상상할 수 없는 마음)

底事無心臥水西(저사무심와수서)
只緣忘世愛幽棲(지록망세애유루)
茶爐爲客開深徑(다로위객개심조)
藥圃諱人隔小溪(약포휘인격소계)
晴散雨聲松老小(청산우성송노소)
秋磨秋色岳高低(영마추색악고저)
林禽亦有來聲睡(림금역유래경수)
猶恐山僧夢紫泥(유공산승몽자니)

무슨 일로 무심히 수서에 누워 있는가,
다만 세상을 잊고 깊숙한 토굴을 사랑하기 때문이네.
차 솥은 객을 위해 깊은 아궁이를 열었는데,
약초밭은 사람들을 꺼려 조그만 시내를 격해 있노라.

산승의 이름과 공을 모두 떨어 버리네

靑鷺鮮尾落雲中(청난삼미락운중)
五月炎天做雪風(오월염천주설풍)
一揮何啻欺煩署(일휘하시기번서)
拂盡山僧名利功(불진산승명리공)

푸른 난새의 긴 꼬리가 구름 속에서 떨어져,
오월의 불꽃 하늘에 눈바람을 지어낸다.
한번 휘두르면 어찌 번뇌와 집착을 속일 뿐이겠는가,
산승의 이름과 공을 모두 떨어 버리네.

유심(幽心 : 깊고 깊은 마음)

盡日忘機坐(진일망기좌)
春來不識春(춘래불식춘)
鳥女兼僧入定(조혐승입정)
窓外喚山人(창외환산인)

매일 세상을 잊고서 앉아 있노라,
봄이 와도 봄이 온 줄을 알지 못하네.
산승이 선정(禪定)에 드는 것도 새는 싫어한다.
창밖에서 산승을 자꾸 부르네.

비개인데 뿌리는 비 소리는 소나무 늙고 또 젊었는데,
찬 서리 다가오는 가을빛은 산 높고 또 낮다.
숲 속의 새가 또 와서 잠을 깨게 하는구나,
산승이 자니(紫泥 : 세속)의 꿈을 꿀까 두렵다.

선사의 깨침은 너무도 깊고도 깊으며, 묘하기가 그 끝이 없어 그 형기(形氣)는 위무(威武)하고 그 성운(聲韻)은 청원(淸遠)하기가 가히 없다. 또한 선지(禪旨)는 억연(嶷然)하기가 애안(崖岸)이 천길 같다.

이와 같은 선사의 선활(禪喝)에 수많은 법려(法侶)들이 문정(門庭)에 가득하였다.

선사의 그 선해지원(禪海智源)은 천하에 두루 펴보지 못하고 무고(誣告)에 의하여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홀연히 영조 5년(1729)에 입적하였다. 세수 66세 법랍 51세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베스트셀러 도서출판 좋은인연 TEL - 053)475-3707 FAX - 053)475-3706 E-mail - buddhabook@hanmail.net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또 다른 수행선시

세월 속에 묻혀 사라질 장면장면을 스님 특유의 간결하고도 선명한 글로 표현한 이 번 책은 수 년 간에 걸쳐 집필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산과 들을 헤매며 찍은 생생한 들꽃과 연꽃이 책 속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연꽃, 흔히 볼 수 없었던 한국의 야생화가 스님의 문체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길 속에 여행

우학스님 선시모음

길 속에 여행

살며시 드러나는 우학스님의
잔잔한 추억의 발자취를
따라 산과 들,
그리고 출세속의 향기에
취해 보십시오!

"법보시 하시면 할인됩니다."

15×22cm/208페이지/정가 10,000원
하드커버 양장제본, 전면 올 칼라

우학스님의 선시 낭송 테잎도 발매중 ☎문의 053)474-8229

화제의 신간

일곱가지종류의 아내

•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곱가지 종류의 아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일곱가지는(란) 무엇인가? 이 시대의 바람직한 아내상은?
• 포교 30년! 함재수 법사가 경전 속에서 찾아낸 일곱가지 종류의 아내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는! 마음의 양식!
일곱가지 종류의 아내
• 지금 아내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이 시대의 바람직한 아내상은 무엇인가? 함재수 법사가 경전속에서 찾아낸 일곱가지 종류의 아내란?



저자 함재수 법사



불교포교 실화집
함재수 지음
신국판/값 8,000원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 제1편 : 부처의 생애
◈ 제2편 : 부처의 가르침



中人 洪淳徹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 (sakyamuni Buddh)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 불교란 「삶의 바른 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15,000원(大)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 신국판 / 양장본 김용식 저 /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 / 이선암,전호일 공저 /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 / 양장본 / 송월스님 지음 /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 / 양장본 / 申昇 /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 컴퓨터본 /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 컴퓨터본 /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 백광 지음 /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 양장본 이상옥 지음 /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혈계관 신국판 / 양장본 진상백저 /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 김윤중 편저 / 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 양장본 김성진 저 /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살풀이 대백과 신국판 / 전현우 저 / 정가 17,000원
17. 명가풍가의 가상학 비결 신국판 / 김용식 저 / 정가15,000원
18.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 / 양장본 / 문길여 著 / 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 B/D 3층 T.921-8434 F.929-3470